

Dynamic Korea Festival 2002

자갈치

MUSICAL

2002. 6. 14(금) ▶ 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가장 부산다운 창작뮤지컬

자간치

MUS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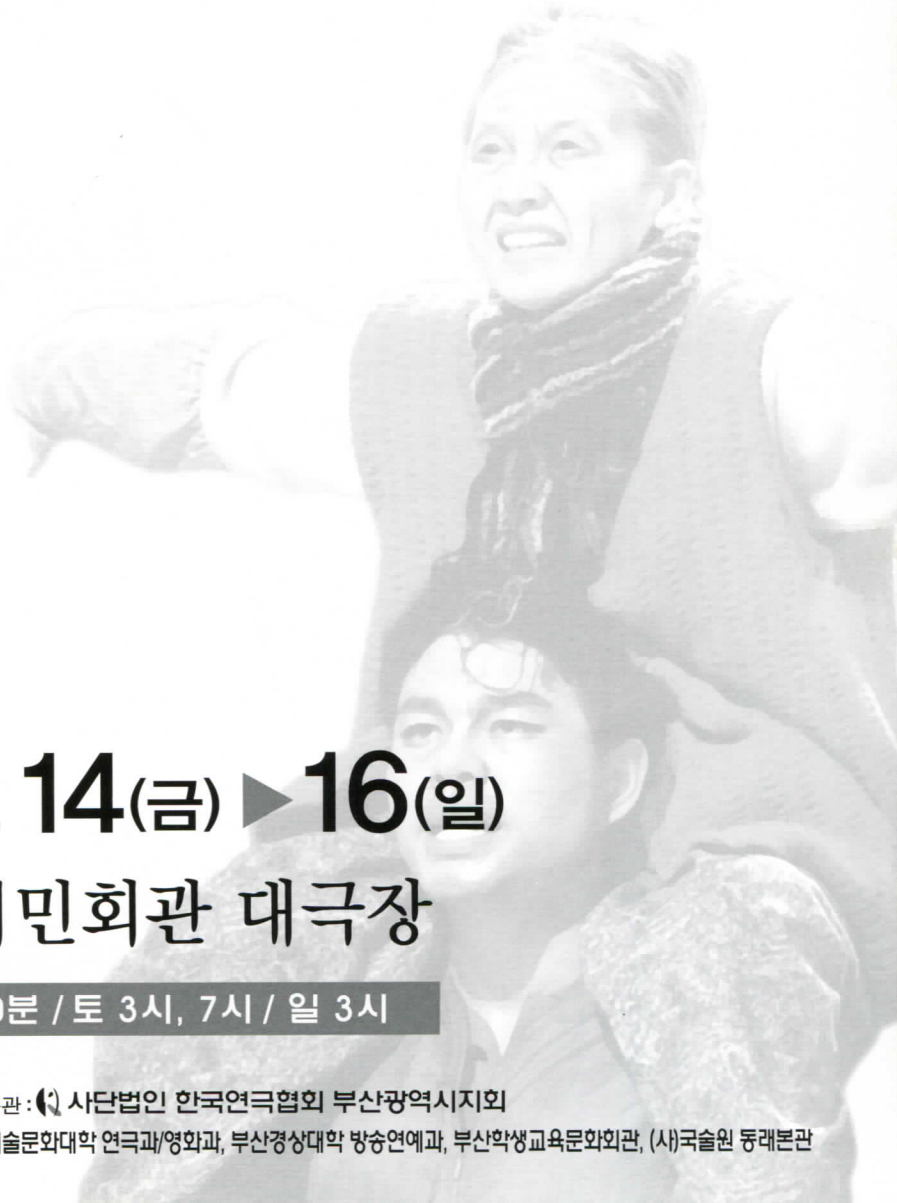
2002. 6. 14(금) ▶ 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금 7시30분 / 토 3시, 7시 / 일 3시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제작지원: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동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산예술문화대학 연극과/영화과, 부산경상대학 방송연예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사)국술원 동래본관



연출가 박성진



1. 부산의 최초이자 유일한 정통 뮤지컬, 뮤지컬<자갈치>!

그 기치를 내걸고, 때마침 세계 최고의 축제의 장인 "월드컵" 행사에 맞추어 공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호기 섞인 자부심이 역설적으로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서울만 해도 이미 오래 전에 순수 창작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후 봇물 터지듯 뮤지컬의 붐을 형성해 왔으며 더구나 세계 최고라고 검증 받은 외국 작품들마저 속속들이 상륙하고 있는 상황이니, 비교해 봐도 그 시작과 현황이 매우 뒤쳐지고 열악함이 분명하다. 허나 부산의 뮤지컬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공연이 더 없는 좋은 기회이며, 의미있는 시도임에 분명하다. 늦었지만 이제 우리 부산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뮤지컬 한 편 정도는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2. 문제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전에도 부산에서 뮤지컬이란 이름으로 몇 편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단언하면 부산에서는 뮤지컬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작품의 형식이나 수준 때문이 아니라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그만 뮤지컬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일반적인 연극과는 다른 제작과정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이 필요하다. 같은 규모의 연극작업에 비해 스태프들의 분야와 수만 해도 몇 배에 달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은 힘들다.

3. 연극을 버려야 한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뮤지컬 작업의 조건은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고체계이다. 아무리 각 분야의 전문가라 할 지라도 음악과, 춤과, 연극을 따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뮤지컬을 만들 수 없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분야를 희생시켜서라도 적절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뮤지컬 작업의 관건인 것이다. 연극 쪽에서 보면, 뮤지컬을 단순히 연극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뮤지컬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뮤지컬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뮤지컬 작업을 해 오며 있어 정작 힘든 것은 연극연출가로서의 사고를 버리는 것이었다-

4. 준비는 되었다.

이번에 함께 작업을 한 주요 스태프들은 3-4년 정도 같이 작업을 해오며, 속된 말로 수많은 낮과 밤을 "찌지고 볶으며" 이러한 의식의 이해에 접근해 왔다. 이전 모두가 음악을 이야기하고 춤을 이야기하며, 연출적 문제를 지적한다. 나름대로 뮤지컬 작업을 위한 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위 "부산의 정통 뮤지컬" 제작의 기치를 내 걸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호기 어린 구호는 아직 미완성이며 진행형이고, 열원이다. 뮤지컬의 구상에서 공연, 그리고 완성도를 갖추는 데까지는 1년의 시간도 턱없다. 앞으로 뮤지컬<자갈치>를 몇 번이나 더 공연하며 보완해야 진정한 면모로서의 뮤지컬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뮤지컬<자갈치>가 예의 그 이름에 걸맞은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젊은 연기자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연기자들이 뮤지컬에 있어서도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지만, 그들만으로 진정한 뮤지컬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처음부터 춤, 노래, 연기의 3박자를 연마한 연기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그들이 현장으로 나오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터전도 만들어야 한다.

5. 현장 연극 발전의 전제!

어찌보면 일부 현장 연극인들에 뮤지컬은 아직도 터부시되는 장르이기도 하다. 그러나 꼭 뮤지컬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장 연극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뮤지컬 제작이 꼭 시대적 사명은 아니다. 허나 연극제작에도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 시대적 요구이자 필요성이다. 비록 일반적인 연극과 뮤지컬에는 제작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통요소가 다분하다. 이 점이 바로 시스템이 절실한 이유이다.



Photo Gallery



작품줄거리

거친 파도를 헤치고 자갈치호의 닻을 올려라!
부산의 뜨거운 젊음과 맥박이 자갈치 아지매들의 걸쭉함과 어우러져
사람 뉘새나는 부산의 상징『자갈치』를 이제 뮤지컬로 만난다.

》 전 막

- 1장** - 부산 자갈치시장, 공사장에서 남편을 잃고 7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인천댁 경준 엄마가 모진 고초를 겪고 옥쟁이 할매의 도움으로 자갈치시장에 자리를 잡는다. 한편, 자갈치 실세인 백사는 양씨의 제의로 자갈치 노점들을 몰아내고 상권을 독점할 계획에 합의한다.
- 2장** - 장선장은 백사와 양씨의 횡포에 맞서 배를 구입해서 독립하려 하고, 이를 눈치 챈 백사와 양씨는 장선장과 노점상의 자금을 압박한다. 다른 한편으로 백사는 자갈치에 새로 들어온 경준 엄마에게 흑심을 품고, 양씨는 자갈치를 독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 3장** - 공판장에서 양씨와 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양씨는 일부러 경매가를 올려 자갈치 상인들의 자금을 더욱 압박한다.
- 4장** - 양씨는 태풍이 몰아치는 날 장선장의 상선들을 침몰시키고, 백사는 폭력배를 동원해 경준 엄마를 납치함과 동시에 장선장을 제거하려고 한다. 장선장은 백사가 보낸 폭력배들과 결투를 벌여 그 중 하나를 살해하게 되고 경찰에 잡힌다.

》 후 막

- 5장** - 10년 후 장선장이 출소하나 자갈치는 이미 양사장이 상권을 장악하고, 상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준 엄마는 양사장의 도움으로 살며 상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다.
- 6장** - 양사장은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나머지 노점상들을 제거하려 하고 자갈치 상인들은 이에 맞서 싸운다. 이때 장선장이 잊혀졌던 옛 동지들을 모아서 나타나 양사장에게 대적하고 자갈치 노점상을 지켜낸다.
- 7장** - 노점상에 물건을 대어 주기 위해 나타난 경준 엄마는 장선장과 만난다. 그러나 노점상들의 냉대로 쫓기듯 뛰쳐나간다. 양사장은 노점상들을 몰아내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세운다.
- 8장** - 경준은 자갈치 사람들에게 냉대 받는 엄마에게 반감을 가지고 자라 말썽을 일삼는다. 그러나 옥쟁이 할매가 경준에게 엄마의 진실을 알려준다. 경준 엄마는 노점상을 몰아내려는 양씨의 계획을 상인들에 알려주거나 양씨의 부하들에게 발각되어 경준이와 옥쟁이 할매와 함께 불 속에 던져진다. 불을 끄려는 시장상인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장선장은 경준 엄마와 경준이, 옥쟁이 할매를 구출해 나온다. 그러나 결국 옥쟁이 할매는 숨을 거두고 분노한 상인들은 양사장에게 몰려간다.
- 9장** - 할매의 장례가 끝나고 노점상인들은 할매의 전재산과 유언을 받아 새로운 상가를 짓게 된다. 그 자리에서 할매의 마지막 유언을 받아 장선장과 경준 엄마는 결혼을 약속하며, 자갈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며 풍악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전 막



후 막

작품의 특징

뮤지컬『자갈치』는

가장 부산다운면서도 '뮤지컬다운 뮤지컬', '대중과 공감하는 뮤지컬'을 지향한다!

I. 뮤지컬『자갈치』는 다릅니다!!!

- "가장 부산다운 연극"으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창작공연물

자갈치는 살아있는 "부산의 축도요, 부산시민의 생활상을 대변해 주는 현장"이기도 한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그래서 "자갈치 아지매"라고 하면 억척스런 생활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이 자갈치 시장의 특징으로 섬세하고 부드러움은 없으나,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다이나믹한 "자갈치 아지매"들은 부산 사람의 특유한 기질을 상징하는 가장 부산다운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이제 가장 부산다운 생활의 터전이자 상징인 『자갈치』를 뮤지컬로 만난다. 걸쭉하고 투박한 사투리가 무대언어로, 노래로 형상화되고 "자갈치 아지매"들이 주인공이 되어 부산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연극언어로 다룬 "가장 부산다운 연극"으로서 뮤지컬 『자갈치』가 부산을 대표하는 창작공연물이 된다.

II. 뮤지컬『자갈치』는 다릅니다!!!

- 부산 창작 역량이 총 동원된 작품

100억대의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1억대의 작품을 대작이라고 말하기엔 초라하지만 뮤지컬 『자갈치』는 부산연극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이며 부산의 정예배우들과 스태프가 참여하여 연극, 음악, 무용, 미술 등 부산 창작 역량을 총 동원한 작품이다.

- 총 제작비 1억5천여 만원
- 100여명의 배우 및 스태프 참여
- 제작 기간 10개월(시연회 포함)
- 부산의 19개 극단 참여

III. 뮤지컬『자갈치』는 다릅니다!!!

- 풍성한 볼거리와 무대기술의 독창적 아이디어

태풍이 몰아치고 노점의 좌판들을 집어삼킬 듯한 거센 바람에 상인들은 줄을 잡아당긴다. 그 때 침몰하는 거대한 배를 표현한 무대기술은 열악한 제작환경 속에서도 독창적 아이디어로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낸 제작진과 배우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80, 90년대의 자갈치 시장을 충실히 표현해낸 무대미술과 새벽녘 자갈치 시장의 정취를 낭만적으로 살려낸 조명은 뮤지컬『자갈치』가 부산의 대표적 문화상품임을 보여준다.

IV. 뮤지컬『자갈치』는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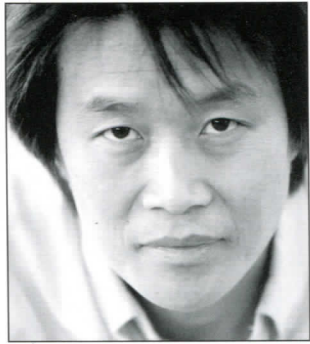
- 부산 뮤지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뮤지컬은 노래와 춤과 드라마가 종합된 오늘날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그 제작 과정은 일반적인 연극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한 방법으로 흥행에 성공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면에서부터 뮤지컬『자갈치』는 차별화 된다.

부산사람들이 만든 부산의 이야기이고, 부산의 언어와 정서를 담은 순수 창작물이며, 사랑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민중의 치열한 삶을 그려낸 사실주의적인 대중극이라는 점에서 뮤지컬의 영역을 넓힌 또 하나의 작품이라 하겠다.

뮤지컬『자갈치』는 성악 및 실용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를 대거 출연시켜 음악과 춤에 비중을 줌으로써, 1막에서 여주인공 경준 엄마가 아리아를 부르다 합창으로 이어지는 장면. 춤과 마임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경준의 솔로와 그 일행의 역동적인 군무와 노래 등. 극의 내용과 인물의 성격 등을 잘 표현해낸 특색 있는 춤과 에너지 넘치는 군무들은 부산의 뮤지컬 제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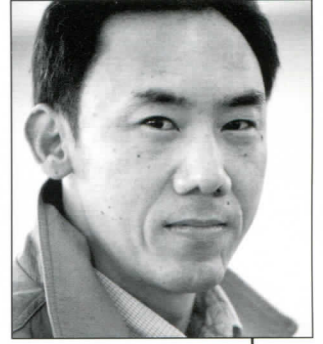
유상홀 | 장선장



김경선 | 경준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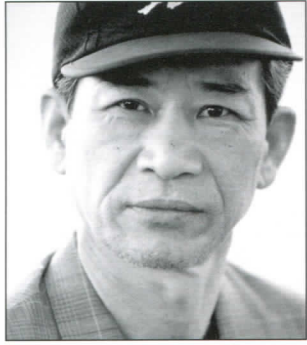
이진희 | 옥쟁이할매



호민 | 양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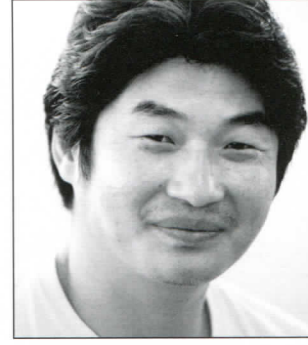
이연기 | 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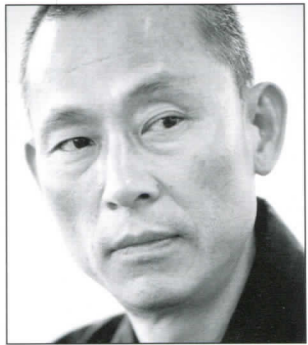
어주선 | 점쟁이



구민주 | 윤과부



황창기 |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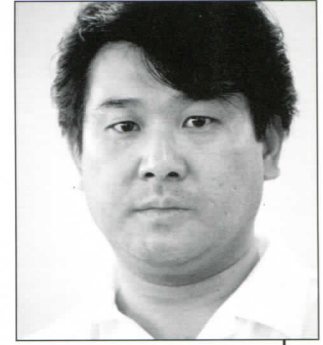
이정허 | 상인



김동석 | 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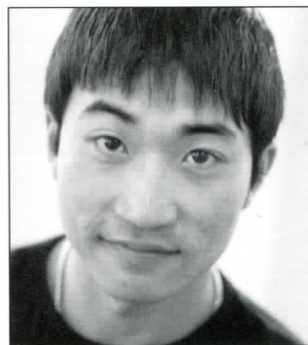
김은미 | 순덕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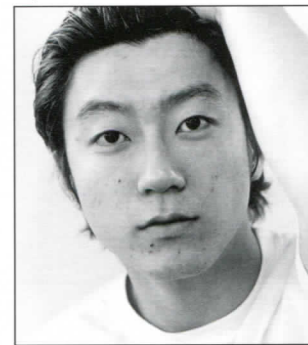
홍성현 | 사회자



문지연 | 제주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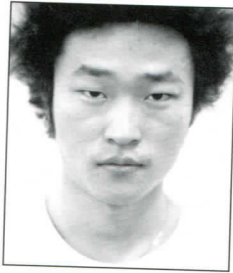


양지웅 | 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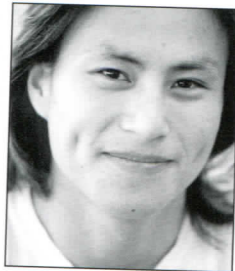


김준영 | 경준

Cast



김종만 | 경매인



도광원 | 지루박



김낙평 | 용역직원2



윤진항 | 넙치



최현정 | 목포댁



이종화 | 커피행상



조성아 | 기장댁



김민아 | 거제댁



문성미 | 거창댁



서경화 | 순천댁



정애경 | 술집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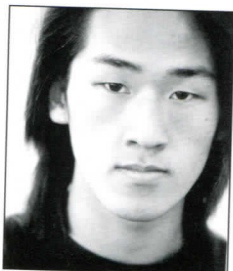
김현숙 | 함흥댁



황선주 | 남해댁



김경선 | 강릉댁



조정우 | 경매상인



최해주 | 덩치



김호민 | 도다리



신현규 | 중매17번

Cast



정종원 | 깡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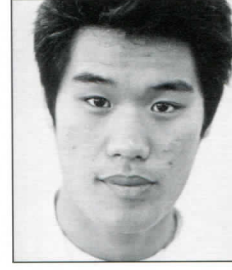
조재환 | 깡패



한상민 | 깡패



류재용 | 깡패



김형준 | 깡패



최유리 | 시장상인



최애숙 | 시장상인



최호근 | 시장상인



이은경 | 시장상인



장서정 | 시장상인



박은정 | 시장상인



최미향 | 시장상인



민혜진 | 시장상인



신경희 | 손님



강원길 | 코러스



이지언 | 코러스



송혜진 | 코러스



정인숙 | 시장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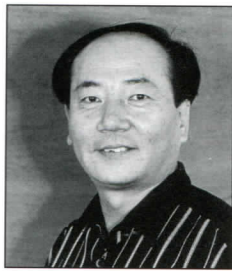


최명숙 | 시장상인

Staff



권철 | 제작감독



이현대 | 작



정봉석 | 드라마투르크



박철홍 | 작곡



박성진 | 연출



곽종필 | 무대감독



이연기 | 음악감독



강희정 | 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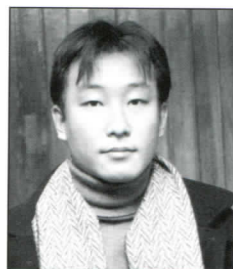


조은아 | 기획

이민아 | 기획



박흥석 | 조연출



윤준호 | 조명디자인



남영우 | 무대미술



전경호 | 음악조감독

Staff



손서운 | 분장



박은주 | 분장



김은엽 | 의상



김종대 | 편곡



하재도 | 음악기술

>> 라이브 연주(밴드)

리드기타 - 김 종 대 베이스 - 주 성 훈
드 럼 - 윤 혁 성 피 아 노 - 한 경 수
키 보 드 - 진 영 린

>> 분장지원팀(도도아카데미)

김영선, 민미경, 김정미, 조정이, 최영하, 박양임, 장미라,
류 영, 김윤정, 황윤재

>> 무대제작팀

정종훈, 박상인, 김병선, 박계훈

치야치야 자갈치야

작곡 박철홍

Cm A^b Cm A^b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치야

Cm E^b Cm

치야 치야 치야치야 치야치야치야치야

Fm A^b Cm Fm A^b Cm A^b

치야치야자갈치야 에헤에헤에헤헤 에헤에헤에헤헤

Cm Cm A^b

아...여루야 자갈치로다 삶 의 고 되 인 생 무 상

E^b Fm G⁷

어 켜고 저 켜고 어 켜고저 켜고어 켜고저 켜고귀 신 켜 나 락 까 먹 는 소리

A^b B^b

하 는 사 람 들 부 산 자 갈 치 에 꼭 한 번 돌 리 보 이 소

G⁷ C G⁷ C

에 사 는 게 무 엇 인 지 게 닭 계

G⁷ C C G⁷

될 겁 니 다 이곳 은 산 의 면 장 부 산 의 명 물 자 갈

C A^b G

치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A^b G⁷ Cm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오 이 소 보 이 소 사 이 소 야!